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 1.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목상합니다.
- 2.말씀 목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 3/8(주일) 일광절약제 시작, Daylight Saving Time Begins.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제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예배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월 월삭 예배는 오늘(3/1)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 [에스라 성경대학 안내]

- * 과목명 : " 신구약 중간사 " / 강사 : 담임목사
- * 일 시 <수요반> 3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주일반> 3월 8일(주일) 오후 1시 ※ 모든 강의는 1시간 진행 됩니다.
- * 장 소 : 대예배실 / 교재 : 영상 및 PPT 강의
- * 신구약 중간사 과목 수강을 원하는 성도님은 교회 로비에 준비된 신청서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버지 복음 학교 (온라인 줌 모임)

- * 일 시: 3월 6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 9시
- * 주교재: 「탕부 하나님」 - 팀 켈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 옥한흠
- * 강 사 : 윤성민 전도사

·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

- * 날짜: 6/29(월)~7/3(금) * 장소: 니콜라과 (김향자 선교사 선교지)
- * 모집인원: 150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담임목사(248-310-9921)

· AI 강연 안내

제목: 인공지능 혁명: 기대와 현실,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
일시: 3월 22일 (주일), 오후 1:30분
강사소개: 이창환 교수 (현) FAU 강의 교수 (AI 전공)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목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32,755.64

일반현금 \$32,635.64	심일조: \$7,264.00	감 사: \$1,230.00
건축현금 \$	주 일: \$3,400.00	기 타: \$20,741.64
선교현금 \$120.00	약 정: \$	목 장: \$12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09호
2026년 3월 01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 사순절 둘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250장(통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 Prayer / 이미셀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십자가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삼상(1Sam) 1:10-11.....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한나의 눈물, 하나님의 시작 >

Hannah's Tears, God's Beginning

성만찬 Holy Communion

▲ 파송찬송 Closing Hymn/ 1부- 보혈을 지나, 2부- 나는 믿노라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3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3월 1일	1부	아름다운 목장	담당자	이미셀권사	아름다운 목장
	2부			조현숙권사	
다음주 3월 8일	1부	아름다운 목장	담당자	노효영권사	갈렘목장
	2부			이윤희집사	

설교요약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3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사람”에 대해 함께 묵상합니다. 사무엘상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자리에서 역사를 여십니다.

1장에는 레위 지파 출신 엘가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결핍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 없음은 단순한 아픔을 넘어 수치와 단절로 여겨졌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단지 “없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그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형편의 배려도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브닌나의 말은 사실일지라도 한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는 결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로,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는 한나의 태만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전할 한 사람이 없는 시대적 결핍이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점점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없습니까?”라는 눈물이었지만, 마침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로 바뀝니다. 빈 잔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채워지면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한 시대를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 단지 자녀를 얻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 사람의 기도가 만날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설교 요약>

혹시 우리도 “왜 나만 입니까?”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여는 기도가 됩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공간일 수 있습니다.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외로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한 사람 하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듯이, 우리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소그룹 나눔 질문

- 1)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이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켰습니까?
- 2) “왜 나만?”에서 “주님 뜻대로”로 바뀌었던 기도의 경험과, 그 변화를 통해 내 삶에 나타난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 3) 최근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내 삶에서 말씀이 실제로 힘이 되었던 순간을 나눠주세요.
- 4) 사무엘처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할 한 가지를 나눠주세요.

금주 애찬 섬김

	금주 (3월 1일)		다음주 (3월 8일)
	조 영.조문선목사		정영진.정영숙목사
	범사감사		범사감사
	아름다운목장		갈렘목장